전화를 실었다. 그리고 다른 식원이 전화를 받으면

해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내가 처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니는 얼한 시작으로 들어 입니다 입 일을 하는데 얼마는 정권상 여전히 일을 놓을 수 일게 되었다. 엄마는 정권상 여전히 일을 놓을 수 없지고,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법을 배워야 없지고,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법만큼은 배우지 됐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법만큼은 배우지 싶으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회사로 늦는다

오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되어서야 오빠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진 걸 보니 말이다. 성인이 작물이 내게 꽤 충격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험이 내게 꽤 충려 있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 최서정 딸인데요. 우리 엄마 언제 와요?"하고 다짜고짜 묻곤 했다. 엄마가 늦는 와중에 회사까지 문을 닫아 엉뚱한 전화도 못 걸게 되면 창밖의 아파트 단지 정문을 바라보며 하엮없이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년 전체가 소풍에 가는 날이었다.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싸 들고 소풍에 가는 것을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 보니 테이블에는 만 원짜리 두 장과 '김밥은 사 먹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만 남겨져 있었다. 소풍에 가기 싫어졌다. 엄마가 싸준 김밥이 아닌 분식집에서 사 온 김밥인 게 티 날 까봐. 그렇게 나는 소풍에 가려고 입은 옷 그대로 방 한편에 앉아 멀거니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집 전화기가 두어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엄마가 벌써 돌아왔나? 소풍 안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유독 싫게 느껴지는 실도 분명 있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일출하는 오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떼를 썼었다.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오빠는 나를 매어놓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나를 떼어놓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제상 무너지듯이 앙앙 울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한 건 그때의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나는 홀로 버티는 법을 자장 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돌 알았던 질까? 장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 시절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 시절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이물로 온몸을 감싼 뒤 열일만 하다. 그리를 이물로 온몸을 감싼 뒤 열일만 하다.

갔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간다고 해야 하나?' 설렘과 불안감을 안고 문을 연 순간, 아랫집에 사는 같은 학교 친구의 엄마가 웬 도시락통을 들고 서 있었다. 내가 소풍에 가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에게 싸주고 남은 김밥을 챙겨주며 끼니 거르지 말라고 나를 다독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을 참아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인사를 했다. 문이 닫히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선 채 생각했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도시락통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정갈하게 담겨있는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었다. 단무지를 씹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되어졌던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외국 평, 외국 사람, 외국 문화, 그리고 텔레비전마저 외국산인 화면 안에서 도통 무슨 말들을 떠드는 건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적막한 집 안에 시끌벅적한 하다 모든 구슨 말들을 떠드는 건지 함인 등을 수 없었지만, 적막한 집 안에 시끌벅적한 하면 당하이 되었다. 그를 다에게 집 타에서 방향한 친구가

임마에게 세 명의 아이와 2억 원의 빛만 남겨놓은 처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사례 이를 모수라 했다. 입마는 도본토에 있는 한식당의 일이 들어 오칠 못했다. 엄마는 생계에 치여 좀처럼 할아가를 더 했다. 엄마는 생계에 치여 좀처럼 될 아지를 더 했다. 엄마는 생계에 치여 좀처럼 될 아니와 오빠 또한 학업과 아르바이트, 또는 및 가지를 더 했다. 엄마는 생계에 치여 좀처럼 되어 오칠 못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될 아니를 보고 하지 않는 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4살 무렵부터 혼자 한 무성하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독립이라면, 나의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国英级

글쓴이 왕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김밥 한 줄

욐



김밥 한 줄 5 ㆍ 6